

## 시, 내년도 예산안 1조2557억원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11.3% 증가  
복지예산 사상 첫 40%대 돌파  
아동·육아기본수당 지급 추진  
문화·관광 관련예산 대폭 증액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1.3% (1275억원) 증가한 1조255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9502억원, 특별회계는 3055억원이다. 일반회계 가운데 사회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3367억원보다 548억원 증가한 3915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40%대를 돌파했다.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기

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이외에 아동수당과 육아기본수당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분야별 예산 규모로는 △문화·관광·교육 799억원 △보건·환경보호 674억원 △산업·중소기업 180억원 △수송·교통 642억원 △국토·지역개발 757억원 △기타경비 1888억원 등이다.

시는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관광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원주사랑 상품권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원창목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를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 내년 예산안, 동해 3745억원·삼척 5468억원

**동해** 동해시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3745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28억원(7%)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종료돼 120억원(23%)이 감소한 396억원이다. 시는 사회 복지와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37%인 1360억원을 쏟아붓는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경비와 예비비 등에 800억원, 산업경제·교통·지역개발 분야에 457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25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6

올해보다 109억원 증가  
일반회계 3348억원 편성  
사회복지·보건 1360억원

억원, 환경·상수도 분야 153억원, 친환경 급식과 교육 분야에 64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투자 사업별로는 청·장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148억원,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68억원, 도깨비굴 스카이블리 조성사업 24억원, 어탈지구 연안정비사업에 23억원을 들여 개발을 촉진한다. 홍성배

**삼척** 삼척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6% (518억원) 늘어난 546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5042억원, 특별회계는 426억원이고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1171억원(21.4%), 농림해양수산 분야 779억원(14.3%),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 631억원(11.5%),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614억원(11.2%), 환경보호분야 561억원(10.3%),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367억원(6.7%) 순으로 나뉜다.

주요 사업은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

올해보다 518억원 늘어  
일반회계 5042억원 편성  
농림해양수산 779억원

10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9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52억원,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50억원, 용화·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 48억원, 근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6억원,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 32억원, 성북배수지 증설 28억원, 대학로 일원 도시재생 28억원 등이다. 김정호